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Patterns of Infant-Father Attachment in the Strange Situation

전북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李 英 煥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buk Sanup University

Assistant Prof. : Young Hwan, Yee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fic nature of early relationship between infant and father. The subject pool for the study consisted of 42 middle-class infant-father dyads. Infants' ages were 12 months to 17 months. All were fullterm babies.

In order to assess the patterns of infant-father attachment, each dyad was videotaped in the simulated Strange Situation of Ainsworth et al(1978). In order to assess the paternal sensitivity toward the infant's cue, each dyad was also filmed for a 3-minute Questionnaire Situation. At home, fa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Mother-Father Scale, Degree of Difficulty and Gratification of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Also at home, mothers completed a report on infant temperament using the Infant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Among 42 infants, 48% or 20 were classified as securely attached, 38% or 16 as anxious-avoidant, and 14% or 6 as anxious-resistant. Using the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for combining the paternal sensitivity scores, 83% of the infants were correctly classified as A, B, C. The patterns of attachment we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aternal childhood experience for attachment relationship to his own parents, Degree of Difficulty and Gratification of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The interactive effect was found between sex and attachment groups with respect to infant temperamental fussiness.

*본 논문은 199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창조물이다. 특히 영아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 또는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Freud는 영아가 양육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첫 1년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고 보았으며 Bowlby는 아동이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은 생물학적 본능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아-어머니 간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영아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아버지의 가치관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어머니에 귀속되었던 자녀 양육 의무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의 공동 양육으로 변화됨으로써 영아 양육에의 아버지 참여는 필수화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Lamb, 1986; Lamb, Pleck & Levine, 1985)은 영아-아버지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후의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성있게 지적하여 왔다. 특히 영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형성하며, 적어도 7개월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똑같이 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 보고(Lamb, 1977; 장휘숙, 1985)를 고려할 때 영아-아버지 간의 초기 관계는 영아-어머니 간의 초기 관계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아의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영아의 애착에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연구의 대부분이 영아-어머니 애착에 관한 것으로 영아-아버지의 초기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영아의 애착 대상이 반드시 어머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영아 양육에의 참여가 필수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영아와 아버지의 초기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Bowlby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영아의 특정 행동이 변화하더라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의 행동 조직 유형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며 애착의 질은 이후의 여러 기능적 측면을 예측함을 일관성있게 지지해왔다. 또한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이후 부모로서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owlby, 1969/1982, 1973, 1980)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애착의 중요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유아-양육자 간의 애착 관계는 양육의 질을 반영한다고 본 애착의 관계적 접근과 대립하여 최근 유아의 개인적 특성 예컨대 기질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애착의 질, 또는 적어도 낮선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Egeland & Faber, 1984; Kagan, 1982; Waters, Vaughn & Egeland, 1980)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Kagan(1982)은 애착 집단의 분류 상태는 어머니와의 격리 상황에서 영아가 불안해 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인 내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할 때 영아의 애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육자와 영아 간의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영아의 개인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Ainsworth의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해 측정하고, 애착 유형에 관련된 아버지와 영아의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변인은 무엇인가?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은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과 관계가 있는가?

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은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과 관계가 있는가?

3) 아버지됨의 어려움은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과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됨의 만족도는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의 기질은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변화

모성 양육을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해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주장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197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아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취업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어머니에 귀속되었던 자녀 양육 의무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의 공동 양육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적인 견지에서 아버지들이 영아의 수유와 양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아버지도 어머니와 동등하게 자녀 양육을 분담해서 수행한다(West & Konner, 1976)는 증거가 제시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관념적 그리고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성 역할 이론에서 양성성 이론을 지지하는 Bem(1974)은 5개월 영아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관찰하여 자신을 양성성-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양 특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는 전통적인 남성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보다 유능한 양육자가 됨을 밝힘으로써 성 역할 지각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주장하였다.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중요하며 양육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영아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민감하며(Frodi, Lamb, Leavitt & Donovan, 1978) 영아의 접근, 상

호작용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애착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동등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영아-아버지의 관찰 연구는 모성적 행동의 생물학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함으로써 오직 호르몬만이 양육 행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일소했으며, 어머니가 일차적 양육 책임자이고 아버지는 단지 보조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한다는 고정적 사회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아와의 놀이 형태나 유아에게 제공하는 자극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Lamb, 1977; Parke & Tinsley, 1987). 따라서 영아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지적, 사회적 발달에 더 효과가 있으며(Lamb, Pleck & Levine, 1985), 특히 아버지는 아동의 성 역할, 성취 동기, 도덕성 발달에 독립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Lamb, 1986).

한편 아버지 노릇(fathering)의 양과 질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Easterbrooks와 Goldberg(1984), Grossmann, Pollack, Golding(1988)의 연구 결과는 최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증가를 곧 아동 발달을 위한 질적 증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아-아버지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 차원이 되어왔던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에의 참여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영아-아버지 관계의 질과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1) 애착체계와 낯선 상황

Bowlby는 동물행동학적 입장에서 애착을 설명함으로써 현대 애착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Bowlby(1969/1982, 1973, 1980)에 따르면 애착 행동은 짝짓기나 먹이기 행동처럼 생물학적 중요성이 있으며 애착체계는 스스로의 분명한 동기를 갖기 때문에 애착하려는 성향은 선천적이다. Ainsworth는 “애착은 영아가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Ainsworth, 1969, p.971)라고 정의하였다. 영아와 애착 대상간의 이러한 유대는 처음에는 애착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

후에는 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한다(Ainsworth et al., 1978). 따라서 애착은 유기체 내적이며 관찰할 수 없는 반면 애착 행동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애착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반면 애착 행동은 가변적이며 상황적이다(Isabella, 1986).

Ainsworth는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다지표를 사용해야 한다(Ainsworth & Wittig, 1969; Ainsworth et al., 1978)고 주장하고 영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낮선 상황을 개발하였다. 낮선 상황은 일련의 간단한 격리와 재결합의 과정을 통해 영아가 애착 대상에게 나타내는 영아의 반응을 통해서 애착 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절차이다. 낮선 상황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 상황은 처음 도입 상황을 제외하고는 각 3분씩 지속된다. 영아는 점차 긴장이 증가하는 일련의 상황에 노출되며 영아가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서 긴장은 최고조가 된다. 애착 대상과의 격리 및 재결합에 대한 영아의 반응은 애착 대상이 영아에게 제공하는 안정감 또는 신뢰감의 정도인 영아의 '실행모델'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의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 추구, 접촉 추구 및 유지, 회피, 접촉에 대한 저항 등의 애착 행동을 근거로 해서 영아의 애착 대상에 대한 애착 관계를 안정(B), 불안-회피(A), 불안-저항(C)으로 분류한다.

2)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회적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부모-자녀 간의 초기 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나 영아의 애착에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아버지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와는 독립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착 연구가 어머니만을 애착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영아-아버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 애착 연구로는 영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형성의 시기를 규명한 장휘숙(1985)의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낮선 상황이 우리나라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연구의 타당한 방법인가를 분석한 이영환(1992)의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영아-아

버지 애착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 보겠다.

영아-아버지 애착에 관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로서 Schaffer와 Emerson(1964)은 영아는 초기에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인 양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영아 발달에서 사회적 자극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영아가 아버지에 대해 애착을 형성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는 많다. Ainsworth(1969)는 영아와 아버지가 상호작용할 기회는 어머니와 비교해볼 때 적기는 하지만 영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이미 형성한 후인 생후 18개월 경에 아버지에 대해 애착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Lamb(1977)은 첫번째 애착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는 생후 7개월 경에 이미 영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 접근하려 하고, 만지려 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잡으려고 하는 등 애착 반응을 보이며 생후 10개월 경이면 아버지는 이미 대부분의 영아들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생리적 지표인 심장 박동 측정을 사용한 종단적 연구에서 장휘숙(1985)은 영아들은 애착 관계의 처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에 분명히 애착되며 그 시기는 7개월 경이라고 하였다.

3. 애착 유형에 관련된 아버지의 변인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

영아가 첫 1년동안 가정 방문을 통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반응성을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 12개월 시 낮선 상황에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애착을 보인 영아의 어머니보다 더 민감하다는 Ainsworth 등(1978)의 연구는 이후의 계속된 반복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안정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애착 영아의 어머니에 비해 영아의 불안과 언어적 신호에 더 민감하고(Belsky, Rovine & Taylor, 1984), 더 적절하게 반응한다(Isabella, 1990). 어머니의 민감성을 총체적 평가를 통해서 연구한 이들 연구 결과는 특정 행동 관찰을 통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지수화를 시도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Isabella, Belsky와 von Eye(1989), Isabella와 Belsky(1991)는 동

시성 개념을 사용하여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시적 상호작용은 안정 애착 관계를 예측했지만, 비동시적 상호작용은 불안애착 관계를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즉 어머니의 간섭적 반응과 과잉자극은 불안-회피 애착 발달을, 냉담한 무반응과 비일관적인 반응은 불안-저항 애착 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와 Pederson(1988)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안정애착에 관한 동시적 측정을 시도하여 영아-어머니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안정애착 영아의 어머니, 불안-회피애착 영아의 어머니,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어머니 순으로 적절한 반응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다른 두 집단 영아의 어머니보다 불충분한 반응을 더 많이 제공하며 간섭적 반응은 불안-회피애착 영아의 어머니가 다른 두 집단의 어머니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회피유형은 어머니의 과잉자극에 대한 결과이며 저항유형은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무반응에 대한 결과라고 밝힌 Isabella, Belsky와 von Eye(1989), Isabella와 Belsky(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애착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양 측면을 학습하며 내재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아동은 자아에 대한 모델을 가치있는 존재로 구성할 뿐 아니라 보상적인 부모 역할을 학습하며 따라서 이후에 부모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Morris(1980)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시 경험한 위기와 방위가족 부모와의 과거 및 현재의 관계 등에 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양육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렸을 적 삶이 안정되었고 방위가족 부모가 애정적이었다고 보고한 어머니의 영아는 안정된 애착 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12개월과 18개월 영아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과 성인 애착 면접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기 애착에 대한 개념화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pstein(1983)은 개인이 아동기에 부모 및 또래로부터 경험한 바가 생식가족 자녀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 MFP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 시 부모의 독립심 고무와 과잉 보호, 수용과 거절, 그리고 부모 이상화를 측정하는 60개 문항(부/모 각각 30개 항목)과 또래와의 경험을 수용과 거절의 차원에서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evine(1988)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또래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의 세대간의 전이에 관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애착 영아의 어머니보다 아동기 시 방위가족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반면 불안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안정애착 영아의 어머니보다 방위가족의 부모에 덜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3)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

양육자가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양육자가 영아의 요구 및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rnic, Greenberg, Regazin, Robinson & Boshman, 1983; Green, 1980; Zakreski, 1983)를 고려할 때 아버지가 가족 체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영아-아버지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Zakreski(1983)는 스트레스 하의 어머니는 영아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영아가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암시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서 영아의 신호에 덜 반응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Crnic, Greenberg, Regazin, Robinson과 Boshman(1983)도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는 긴장 하에 있는 어머니는 영아에 대한 긍정적 감정 수준이 낮고 양육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영아의 행동적 암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가족 체계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의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한 Green(1980)은 총체적 스트레스와 애착 유형간에 유의한 관계는

없었지만 낯선 상황에서의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인 접근 및 접촉수준, 접촉유서, 지향 행동이 어머니의 상황적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4. 애착 유형에 관련된 영아의 기질

기질이 애착 체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크게 두 입장이 대립된다. 첫째, 기질이 애착 체계 기능의 모델 내에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질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영아-양육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에 이미 기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출현하는 영아의 개인차는 영아의 독특한 성격에 적응하기 위한 어머니 능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 유형은 단지 영아의 기질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Kagan(1982)은 영아의 애착 집단 상태인 A, B, C는 영아가 어머니와의 격리 상황에서 당황하고 불안해 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낯선 상황에서의 영아 행동의 일차적 결정자는 영아 자신의 기질이라고 주장한다.

Brazelton 신생아 행동 측정 척도에서 까다로운 경향이 높았던 영아는 12개월에 실시된 낯선 상황에서 C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으며(Waters, Vaughn & Egeland, 1980), 신생아때 덜 활동적이고 다루기가 더 어려우며 수유시 사회적 반응이 적었던 영아는 저항애착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고(Egeland & Faber, 1984), 지향성이 높았던 영아는 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았다(Grossman et al, 1985). 개정 영아 기질 질문지(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 RITQ)를 통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기질 보고와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애착을 분석한 Frodi(1983)도 C유형 영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영아를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한 반면 A유형 영아의 어머니는 가장 덜 까다롭다게 지각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애착의 기질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Cusson(1989)은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동안 관찰을 통해 측정된 영아의 기질 및 영아 특성 질문지(Infant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 ICQ)를 통해 측정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기질의 개인차 지각은 애착 분류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Bates, Maslin과 Frankel(1985)은 ICQ와 RITQ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고 낯선 상황에서 애착 유형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아의 기질이 애착 유형을 변별하지 못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애착은 영아-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역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관계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영아의 기질적 개인차와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임으로써 애착의 관계적 입장과 기질적 입장의 논쟁은 환경과 유전간의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애착에 대한 기질의 기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이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영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을 비교하여 애착의 관계 대 기질의 논쟁에 답하려는 시도가 있다. 기질이 낯선 상황의 행동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 영아가 여러 양육자에 대해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며, 반대로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이는 애착의 관계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Easterbrooks(1989), Goossens과 van IJzendoorn(1990)의 연구는 영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이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Fox, Kimmerly와 Schafer(1991)는 영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비교에 관한 11개의 연구를 선정하여 종합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쪽 부모에 대해 안정애착 또는 불안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다른쪽 부모에 대해서도 안정애착 또는 불안애착으로 유사하게 분류되며, 더 나아가 한쪽 부모에 대해 회피 또는 저항으로 범주화된 영아는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범주화됨을 밝혔다. 이들 연구가 애착의 기질적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Grossmann, Grossmann, Huber와 Wartner(1981)는 영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갖는다고 밝힘으로써 애착의 관계적 입장을 고수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영아와 이들의 아버지 42쌍이다. 이들 영아는 모두 정상 분만아이며 영아의 평균 연령은 13개월 29일이다. 영아의 아버지는 모두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로 중류계층에 속한다. 총 42명 중 86%인 36명의 아버지가 29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 범위에 해당되며 평균 연령은 32세이다.

2. 실험 연구 절차

아버지에 대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아버지의 민감성은 실험 연구를 통해 측정했으며 실험 상황은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임의적으로 표집한 영아-아버지 6쌍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선행연구(유효순, 1985; 이영환, 1992)를 참고하여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가 혼자 남는 상황인 제 7 에피소드를 생략하고 또한 각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얻은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는 각 에피소드에서의 아버지와 낯선이의 일부 행동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했으며 영아와 이들의 아버지가 실험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이용하였

다.

1)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애착 대상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는 점과 실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 등을 고려할 때 낯선 상황의 각 에피소드 시간이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이영환, 1992).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낯선 상황 절차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낯선 상황에서 영아와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했으며 이 테이프를 여러번 반복 관찰하여 Ainsworth등(1978)이 기술한 애착 분류 준거에 따라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안정애착 집단(B), 불안-회피애착 집단(A), 불안-저항애착 집단(C) 등 주요 3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신뢰도를 위해 연구자와 아동 발달을 전공한 대학원생 1명이 각각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불일치한 경우, 공동으로 재관찰하여 100%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 측정 방법 및 절차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을 동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상황(Smith & Pederson, 1988)은 낯선 상황에 이어서 실시하였으며 실험 상황은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분석 과정은 질문지상

표 1. 낯선 상황 절차

에피소드	등장인물*	시간**	행동기술
1	F, B, E	30초	E가 F와 B를 관찰실로 안내하고 나간다.
2	F, B	1분	B가 탐색하는 동안 F는 B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하지 않되 B의 반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응한다.
3	F, B, S	1분	S가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 1분이 되면 F는 밖으로 나간다.
4	B, S	2분	1차 격리 상황. S의 행동은 B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5	F, B	2분	1차 재결합 상황. F가 B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S나감) B를 달래고 다시 놀이에 임하게 한다. 2분 뒤 S가 들어오면 F는 나간다.
7	B, S	2분	2차 격리 상황. S의 행동은 B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8	F, B	5분	F가 B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 B를 달랜다(S나감). B가 다시 탐색에 임하면 질문지 상황을 시작한다.

*F: 아버지 B: 영아 S: 낯선이 E: 실험 보조원

**필요에 따라 각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황의 3분을 3초 간격으로 나누어 총 60 에피소드 동안 영아의 행동-울기, 훌쩍이기, 소리내기, 미소, 아버지 얼굴 바라보기, 아버지에 대한 접근, 접촉 요구-과 아버지의 행동-소리내기, 영아 바라보기, 손 내밀기, 만지기, 들어올리기, 안아주기-의 발생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에피소드에서의 아버지의 반응을 1) 적절한 반응, 2) 불충분한 반응, 3) 간접적인 반응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4) 아버지의 반응이 요구되는 에피소드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이 적절한 반응일 때의 에피소드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민감성 측정의 신뢰도를 위해 연구 대상 영아-아버지 42쌍 중 무선적으로 10쌍을 선정하여 연구자와 낯선 상황 분류의 결과를 모르는 아동발달을 전공한 대학원생 2명이 각각 민감성의 4가지 범주의 행동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평가자 신뢰도가 $r=.91$ 이었다.

3. 질문지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12개월에서 36개월 유아의 아버지 30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89부가 회수되었으나 경제적 중류층에 속한 아버지의 질문지 16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일부를 삭제한 뒤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한편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12개월 영아의 아버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버지가 "영아의 기질은 엄마가 더 잘 알것"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영아의 어머니가 기질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는 낯선 상황 실험이 끝난 후 영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집에서 작성하도록 했으며 1주일 후 가정방문을 통해 회수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통해 측정된 변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본 연구는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1983)이 제작한 부모-모-또래 척도 중 부모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 시 부모에 대한 경험을 세가지 차원-독립심 고무와 과잉보호, 수용과 거절, 부모 이상화-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 60문항(부, 모 각 3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아버지의 아동기 방위가족 어머니에 대한 경험 척도는 Cronbach의 $\alpha=.86$, 아버지의 방위가족 아버지에 대한 경험 척도는 Cronbach의 $\alpha=.89$ 로 나타났다.

2)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족 스트레스 척도로서 부모됨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Hobbs, 1968)과 만족(Russell, 1974)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려움 척도는 23문항, 만족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척도이다. 어려움 척도는 Cronbach의 $\alpha=.81$, 만족 척도는 Cronbach의 $\alpha=.84$ 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Bates, Freeland와 Lounsbury(1979)에 의해 개발된 영아 특성 질문지(ICQ) 중 제 1 요인인 까다로움(fussy) 요인에 해당되는 9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분할표 검증, t 검증, χ^2 검증, 분산분석, 판별분석 등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낯선 상황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 변인인 접근 추구, 접촉 유지, 접근과 상호작용 회피, 접촉 저항 행동을 기초로 하여 Ainsworth등(1978)의 애착 유형 분류 준거에 따라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결과 42명 영아 중 안정애착이 20명으로 48%, 불안-회피 애착이 16명으로 38%, 불안-저항 애착이 6명으로 14%로 나타났다. Ainsworth등(1978)의 연구는 안정애착이 66%, 회피애착이 22%, 저항애착이 12%의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 애착 연구에서 표준이 된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은 회피애착 유형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이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2. 아버지의 특성과 애착 유형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과 애착 유형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의 4가지 반응 범주 즉 적절한 반응, 불충분한 반응, 간접적인 반응,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비율에 대한 애착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안정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는 불안-회피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적절한 반응을 더 많이 제공하며 또한 불안-회피 애착집단 영아의 아버지는 불안-저항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적절한 반응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Smith와 Pederson(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때 적절한 반응에는 무반응이 적절한 경우도 포함된다. 불안-회피 애착 유형의 영아는 아버지의 질문지 작성 동안 별로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혼자서 탐색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적절한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다. 무반응이 적절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일 때와 영아가 주의를 요구했을 때 이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이 될 때는 그 특성이 다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살펴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적절한 반응의 비율'이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안정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가 나머지 두 애착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높았으며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안정애착 영아의 아버지는 불안-회피애착과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아버지보다 영아가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낸 것이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은 불안-저항애착 영아의 아버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불안-회피애착, 안정애착 영아의 아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어머니가 다른 두 집단 영아의 어머니보다 불충분한 반응이 높았다고 보고한 Smith와 Pederson(1988)의 연구 결과 및 저항애착 유형은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무반응에 기인한다(Isabella, Belsky & von Eye, 1989; Isabella & Belsky, 1991)는

표 2. 애착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민감성의 평균과 분산분석표

반응 유형	애착 유형			F	Duncan Grouping
	안정(n=20)	회피(n=16)	저항(n=6)		
적절한 반응	54.6 (91.0%)*	39.8 (66.3%)	18.8 (31.3%)	28.7 P<.001	B>A>C P<.05
불충분한 반응	4.2 (7.0%)	20.3 (33.8%)	34.8 (58.0%)	20.6 P<.001	C>A>B P<.05
간접적 반응	.8 (1.3%)	없음 (없음)	6.3 (10.5%)	3.2 P<.05	C>A=B P<.05
반응 요구시 적절한 반응비**	74.1	16.5	28.3	19.8 P<.001	B>A=C P<.05

* ()는 각 반응 유형의 60 에피소드에 대한 백분율(각 반응 유형의 반응 에피소드/60에피소드×100)

**반응요구시적절한반응비=반응이 요구될 때 적절한 반응을 한 에피소드/반응이 요구되는 에피소드×100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회피애착 유형이 어머니의 과잉자극에 기인한다 (Smith & Pederson, 1988 ; Isabella, Belsky & von Eye, 1989 ; Isabella & Belsky, 199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불안-저항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가 다른 두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간섭적 반응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몇명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영아에 대한 간섭적 반응 발생 빈도가 낮았으며 특히 회피애착 영아의 아버지는 간섭적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간섭적 반응의 발생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간섭적 반응이 특정 애착 유형을 결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아버지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각 범주의 반응 유형이 낮선 상황을 통해 분류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를 보기 위해 판별분석(판별분석에서 4개의 측정치 중 간섭적인 반응은 발생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3개의 측정 결과만 분석에 포함시켰다)을 실시한 결과 안정, 회피, 저항의 세 집단으로의 분류의 정확성은 83%로서 Smith와 Pederson(198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애착 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정애착의 84%, 회피애착의 75%가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저항애착은 6명 모두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애착 유형

애착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아동기 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애착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표 3에서 보듯이 불안-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는 다른 두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아동기 시 방위가족 아버지와 어머니가 독립심을 덜 고무했으며, 덜 수용했던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불안-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가 다른 두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아동기 시 부모를 더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경험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생식가족 자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함으로써 영아의 불안-저항애착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애착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지각의 유의한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의 사례수가 적었으며 또한 질문지를 통해 피험자의 아동기 경험이 변별력있게 체크되지 못한데에 기인한다고 본다.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아동기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버지가 과거의 부모와의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밀도있게 밝힌다면 초기 경험의 지각과 처리 방식이 생식가족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버지됨의 어려움 및 만족도와 애착 유형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가 애착 유형간에

표 3. 애착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의 차이

영역	애착 유형 :			F값	P<
	안정(n=20) M(S.D.)	불안-회피(n=16) M(S.D.)	불안-저항(n=5~6) M(S.D.)		
어머니에 대한 경험					
제 1 요인(독립심 고무)	28.20(5.75)	30.88(6.22)	28.17(6.74)	.97	...
제 2 요인(수용)	37.60(5.38)	37.25(7.67)	34.17(6.24)	.67	...
제 3 요인(부모 이상화)	21.50(5.35)	21.06(6.22)	23.33(4.50)	.36	...
아버지에 대한 경험					
제 1 요인(독립심 고무)	29.35(6.79)	31.06(7.73)	26.40(6.66)	.84	...
제 2 요인(수용)	36.15(5.28)	36.63(8.01)	31.00(5.57)	1.51	...
제 3 요인(부모 이상화)	20.50(5.74)	21.19(5.53)	23.00(3.08)	.43	...

표 4. 애착 유형에 따른 아버지됨의 어려움과 만족도의 평균과 분산분석표

어려움과 만족도	애착 유형 : 안정(n=20) 불안-회피(n=16) 불안-저항(n=6)			F값	P<
	M(S.D.)	M(S.D.)	M(S.D.)		
아버지됨의 어려움	38.25(5.98)	36.25(5.81)	42.00(10.10)	1.68	.20
	1.66(.26)	1.58(.25)	1.83(.44)		
아버지됨의 만족도	31.00(3.34)	29.64(4.76)	31.00(4.86)	.55	...
	2.58(.28)	2.47(.40)	2.58(.40)		

표 5. 성별과 애착 유형에 따른 영아 기질의 분산 분석표

Source	SS	df	MS	F	P<
성별	.13	1	.13	.18	...
애착 유형	3.38	2	1.68	2.31	.14
성별×애착 유형	4.10	2	2.05	2.82	.10
오 차	26.23	36	.73		
전 체	33.83	41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됨의 어려움이 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에서 높았고 회피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아버지됨의 만족도 역시 애착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영아의 기질과 애착 유형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기질이 영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성별과 애착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애착 유형(3)×성별(2)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영아의 기질은 성별과 애착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으나 성별과 애착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p <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일 경우는 회피애착 영아의 어머니가 영아를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했으며 여아일 경우는 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어머니가 영아를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A, B, C의 주요 3 애착 집단에 따른 영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의 차이는 밝히지

못했어도 성별과 애착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는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영아의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 또는 애착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질의 까다로움 요인을 구성하는 9개 문항 각각에 대해 애착 유형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기가 불안해 하거나 당황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안정애착 집단 영아의 어머니가 다른 두 애착 집단 영아의 어머니보다 영아를 더 까다롭다고 지각하였다($P < .01$, $B > A = C$).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서로 대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Frodi와 Thompson(1985)의 주장처럼 낯선 상황에서 영아가 지각하는 불안 및 공포의 개인차가 애착 유형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애착 실험 과정에서 많이 울고 에피소드 전 과정을 통해서 특히 아버지와의 격리 에피소드에서 크게 불안해 하며 아버지의 위로에 쉽게 안정되지 못한 영아가 저항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낯선 상황에서 영아가 겪는 공포나 불안의 정도는 영아의 개인적 기질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특성은 낯선 상황에서 영아가 애착 대상과의 격리 및 재결합에 대한 반응 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안정, 회피, 저항의 애착 유형 분류는 그러한 영아의 기질적 특성, 즉 적어도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애착의 관계적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불안애착 유형의 영아는 안정애착 유형의 영아에 비해 애착 대상을 덜 유용한 존재로서 실행모델을 형성했기 때문에, 애착

대상이 제공하는 지원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협에 대한 신호가 지각된 낯선 상황에서 불안애착 유형의 영아는 안정애착 유형의 영아보다 애착 대상인 아버지를 안전기저나 피난처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거나 당황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낯선 상황을 통해 측정된 애착 유형 또는 적어도 애착 행동은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질의 9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만 애착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애착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insworth의 낯선 상황(Ainsworth et al, 1978)을 실시하여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측정하고, 애착 유형에 관련된 아버지와 영아의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Ainsworth의 분류 준거에 따라 주요 3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42명의 영아 중 48%인 20명의 영아가 안정애착 유형에 속했으며, 38%인 16명의 영아가 회피-불안애착, 14%인 6명의 영아가 저항-불안애착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는 불안-회피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적절한 반응을 더 많이 제공하며 또한 불안-저항애착 집단의 영아의 아버지는 불안-회피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적절한 반응을 더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충분한 반응은 불안-저항, 불안-회피, 안정애착 집단의 영아의 아버지 순으로 높았다. 한편 불안-저항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가 다른 두 유형의 애착 집단 영아의 아버지보다 간섭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아동기 시 방위가족의 어머니에 대한 경험과 아버지에 대한 경험, 아버지됨의 어

려움과 만족도는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네째, 애착 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아일 경우는 회피애착 영아의 어머니가 자녀를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했으며 여아일 경우는 저항애착 영아를 가장 까다롭다고 지각하였다. 문항별로 볼 때 "아기가 불안해 하거나 당황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안정애착 집단이 다른 두 애착 집단 영아보다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까다로움의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은 영아-양육자 간의 첫 1년 동안의 상호작용 역사를 반영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중 회피-불안애착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우리나라 아버지와 영아의 초기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민감성과 애착 유형을 동시적으로 측정하였지만 앞으로의 영아-아버지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즉 초기의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가정방문을 통한 종단적인 관찰 연구, 영아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간단한 질문지 상황 하에서 측정된 행동으로부터 유도한 아버지의 민감성을 측정된 반응 유형 중 적절한 반응과 불충분한 반응은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영아-아버지 애착 유형을 예측하였다. 간섭적 반응도 역시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양육자의 간섭적 반응을 보다 잘 변별할 수 있는 상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는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했던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양육자의 내적 실행모델인 아동기 경험을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거의 경험이 현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까다로움은 애착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며, 불안애착 영아가 안정애착 영아보다 더 달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애착연구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 뿐 아니라 영아의 개인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이 애착체계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측정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영아의 기질을 신생아때부터 종단적인 관찰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가 12개월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을 예측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영아의 특성이 애착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다 더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영아-아버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때 영아와 아버지의 초기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초기 영아-아버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본 연구 대상자는 중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자녀 양육에 관심과 참여가 덜 하다고 인정되는 하류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이영환(1992).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13(2), 5-17.
- 3) 장휘숙(1985). 생리적 지표로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의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Ainsworth, M.D.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5)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6) Ainsworth, M.D.S. & Wittig, B.A.(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Vol.4, pp.113-136). London : Methuen.
- 7) Bates, J.E., Freeland, A.B. & Lounsbury, M.L.(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8) Bates, J.E., Maslin, C.A. & Frankel, K.A.(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In I.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167-193).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9) Belsky, J. & Rovine, M.(1987).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 An empirical rapprochement.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10) Belsky, J., Rovine, M. & Taylor, D.G.(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3 :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11)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12)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 Vol.2. Separation*. New York : Basic.
- 13)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 14)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 Vol.1. Attachment*.

- achment(2d). New York : Basic.(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15) Crinic, K.A., Greenberg, M.T., Ragazin, A.S., Robinson, N.M. & Boshman, R.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16) Cusson, R.M.(1989).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infant temperament on the maternal-preterm infant attachment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17) Devine, D.J.(1988). *The effects of maternal working models o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behavior*. Psy. D. Dissertation, Antioch University/New England Graduate School.
 - 18) Easterbrooks, M.A.(1989). Qual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 Effects of perinatal risk status. *Child Development* 60, 825-830.
 - 19) Easterbrooks, M. & Goldberg, W.,(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 740-752.
 - 20) Egeland, B. & Farber, E.A.(1984).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21) Epstein, S.(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22) Fox, N.A., Kimmerly, N.L. & Schafer, W.D.(1991). Attachment to mother/ Attachment to father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2, 210-225.
 - 23) Frodi, A.(1983). Attachment behavior and sociability with strangers in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 13-22.
 - 24) Frodi, A. & Thompson, R.(1985). Infants' affective responses in the Strange Situation : Effects of prematurity and of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6, 1280-1290.
 - 25) Frodi, A.M., Lamb, M.E., Leavitt, L.A. & Donovan, W.L.(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and cr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 187-198.
 - 26) Goossens, F.A. & van IJzendoorn, M.H.(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837.
 - 27) Green, J.(1980).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nfant-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28) Grossmann, K.E., Grossmann, K., Huber, F. & Wartner, U.(1981). German children's behavior towards their mothers at 12 months and their fathers at 18 months in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 157-181.
 - 29) Grossmann, K., Pollack, W.S.,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91.
 - 30) Hobbs, D.(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 A replication and an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413-417.
 - 31) Isabella, R.A.(1986).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al synchrony during the infant's first year*.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2) Isabella, R.A.(1990). *Origins of attachment :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of lif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eview,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33) Isabella, R. & Belsky, J.(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34) Isabella, R.A., Belsky, J. & von Eye, A.(1989).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al synchrony during the infant's first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2-21.
 - 35) Kagan, J.(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 An evaluative summary*. New York : W.T. Grant.
 - 36) Lamb, M.E.(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37) Lamb, M.E.(1986).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In M.E. Lamb(Ed.), *The father's role : Applied pe-*

- rspectives*(pp.3-28). New York : Wiley.
- 38) Lamb, M.E., Pleck, J.H. & Levine, J.I.(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Lahey & A.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8, New York : Plenum.
- 39) Main, M.(1973). *Play, exploration and competence as related to child-adult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40)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Bretherton & E.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41) Morris, D.(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ing in the toddler :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42) Parke, R. & Tinsley, B.(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D.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d, pp.579- 641),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43) Russell, C.(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94-301.
- 44) Schaffer, H. & Emerson, P.(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3, Serial No.94).
- 45) Smith, P .B. & Pederson, D.R.(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46) Waters, E., Vaughn, B.E. & Egeland, B.R.(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t age one : Antecedents in neonatal behavior in an urb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ample. *Child Development* 51, 208-216.
- 47) West, M. & Konner, M.(1976). The role of the father :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n M.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48) Zakreski, J.(1983). *Prematurity and the single parent : Effects of cumulative stress on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